

주간 증시 포커스

글로벌 증시 호조 국내 긍정 영향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기대감

해외펀드 장기적 시점서 투자를

지난 14일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국가단체(우정사업본부 등)가 장중 유입되었던 12월만기 지수선물 연계 매수차익잔고를 증가무렵부터 시작하여 마감동시호가에 청산물량이 대량으로 나오고 미니선물 유동성공급자(LP)를 맡고있는 금융투자(증권회사)가 프로그램 비차익매물들이 증가에 급격하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중 2514포인트(+34P)까지 상승했던 코스피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하며 2471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번 선물옵션만기 충격으로 연말 배당투자를 위한 기관과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기대하며 산타렐리를 고대했던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약화됐다.

미국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 정책금리를 0.25% 인상했다. 보유자산 축소정책과 점도표의 추가적인 변화는 없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향후 신중하고 완만한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밝히면서 미국증시는 세계개역안과 경기지표 호전 기대감으로 연말렐리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증시 호조가 국내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본다. 다만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정책에 변화를 주지않고 2018년 1분기부터 월간 200억달러로 100억달러 확대될 예정으로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산축소에 대한 시장반응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닥지수는 2018년 코스닥대장주로 등장하는 셀트리온스케어가 상승을 이끌며 지난주 반등세로 돌아섰다. 한중정상회담, FOMC 기준금리인상, 선물옵션 동시만기 등 지수에 하락성상을 높일 만한 이벤트는 지나간 상황으로 내년 초 코스닥활성화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의견 강화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8월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요건에서 지분을 변동은 없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15억이상으로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고 과세표준 3억 이상 대주주는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상승했다. 대주주요건 강화가 시작된 2013년이후 결산일을 전후하여 대주주요건 회피를 위한 매매가 나타나고 있어 중소형주 매매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주식 및 주식형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비교해 보면 해외주식형펀드는 수익에 16.5%를 과세한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해외비과세펀드로 지정하여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향후 10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10년이내에 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출금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3000만원을 전액입금하지 않고 1만원만으로도 3000만원까지 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적립식으로도 가능하다.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있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를 선정하여 재테크에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산지서 80kg 한 가마 15만4968원 기록 ... 16만원대까지 오를 듯

농촌경제연, 내년 7~9월 단경기 상승 분석 ... 농가도 출하 늦춰

쌀 가격이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며 15만 5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쌀값이 계속 상승해 16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7~9월 단경기 쌀값이 올해 수확기보다 좋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지역 농가들도 벼 출하를 자제하며 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8328원보

다 2만 6640원(20.8%) 상승한 15만4968원을 기록했다. 평년 16만 2124원과 비교해서는 4.4%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 쌀값이 오르는 이유는 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벼 출하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수확기 기간 가격 하락 없이 상승세가 이어진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12

쌀값이 오른다

월 쌀 관측 월보'를 통해 오는 2018년 7~9월 단경기 쌀값이 올 수확기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단경기 쌀값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쌀값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가격상승을 염두에 둔 농가들은 벼 출하를 미루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아무리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쌀의 공급 감소폭이 소비 감소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단경기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벼 출하가 미뤄져 시중의 쌀 공급량이 줄어들면 또다시 가격 상승이 발생해 한동안

쌀값의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다.

이처럼 쌀 재배 농가들이 벼 출하를 자제하고 나서자 원료곡 매입실적이 저조한 RPC들은 벼의 몸값을 올리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다.

RPC들이 정부의 벼 매입자금을 올해까지 모두 소진해야함에 따라 벼값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고 당달이 이달 쌀값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쌀 산지가격 16만원대 돌파도 조짐스레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한 점도 가격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상금' 사업설명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지난 15일 나주 중흥 골드스과 리조트에서 지자체와 전국 도매시장 경매사, 유통업체 바이어, 시군연합사업단 등 100여명을 초청해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 '상금'의 사업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연합사업 평가 시상·감사패 증정을 시작으로 상금에 광역연합 사업 설명, 육과 APC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으며, 타브랜드와 상금에 브랜드인 단감, 사과, 무화과를 시식하는 품평회도 실시했다.

올해 전남농협은 영암, 신안, 해남의 무화과를 상금에 브랜드로 당초 목표액 52억 대비 136% 초

과 달성한 7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광역연합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판매에서 농협 대외마케팅단을 통한 대형마트의 판매 비중을 전체 매출액의 60%대로 끌어 올렸으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 17억원을 추가 증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흥묵 본부장은 "국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맛 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전남농협도 상금에 브랜드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안정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청년해외개척단 2기 성과발표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17일 '청년해외개척단(AFLO, 아프로)' 2기 성과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영세한 우리 농식품 업체의 인력난, 언어장벽 해소를 통한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영정교 언어능력을 갖춘 국내 청년 60여명을 '아프로'로 위촉, 수출업체와 매칭 후 신용 유망국 14개국에 파견해 신시장 개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는 각국에 파견된 청년들이 현지에서 역량과 수시 통의 연락을 통한 집요한

실적으로 이탈리아 프로쥬쿠 베로나 FC와 우리 농식품 홍보행사를 성사한 사례와 현지 유통방송사를 통해 브라질 한국 배 첫 수출을 현지 전역에 홍보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청년해외개척단 2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이탈리아에 파견된 최별이 단원이 선정됐으며, 이날 성과발표회 우수자 6명에게는 포상금이 전달됐다.

백원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청년해외개척단은 청년과 수출업체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을 활용 농식품 수출 유망시장을 개척하는 일자리사업의 성공사례"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 어선어업 정책보험 4종 가입 지원 확대

전남도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어업 정책보험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선 재해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4종이다. 도는 내년 예산으로 도비 13억원 포함해 총 42억원을 확보했다.

어선 재해보험은 각종 해난사고 때 신속한 어

선 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기존 5t 미만 어선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 어선이 2017년 4t 이상에서 내년 3t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전남에서만 10%척의 어선이 새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3t 미만 어선이나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만 15~87세 어업인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식품종 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갈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송어, 멍게, 뽕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붓, 능생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룻, 메기, 향어 등 총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액과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 안전과 재산 권 보호를 위해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nam-do, featuring three main sections: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Pyeongtaek City Land Sale), '영광주택 매매' (Yeonggwang Housing Sale), and '법률 경매' (Legal Auction). Each section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법률 경매' section includes a list of 12 auction item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